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다. 5년째 내리 계속되는 불황으로...

얼어 죽고 다른 한편에서는 데어 죽는 형국이다. "없는 사람 살기 갈수록 팍팍해지는 세상이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현재도, 미래도 불안한 서민들

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직장인들은 고용불안으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고, 중소기업인은 "공장을 둘러싼 돌림수족..."

문제는 서민들이 현재 살기도 고달프지만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도 버렸다. 수억,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가격은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깊어가는 서민 한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해외여행은 '연감생심'이다. 그런데 국민 4명 중 1명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

물은 농민들을 농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곤궁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곤궁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하면 일탈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

현실을 판단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민경제의 실상을 인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회생 우선돼야

이제 서민들은 진보니 보스니 하는 이념적 논란에 신물이 났다.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결국은 서민경제의 불안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 가진 자보다는 소외받는 사람들과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다.

《논설위원》/jhjung@kwangju.co.kr

시설

지방정부가 기업활동 발목 더 잡아서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9.6배에 이르는 48개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설립비용도 미국, 캐나다에 비해 2배가량 높다.

9월 산업연구원이 투자 활성화 예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자체가 어렵다. 구비서류나 설립비용도 그렇거니와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평균 인·허가 소요기간만 무려 137일이나 걸린다.

지방에서의 기업활동은 더욱 어렵다. 16개 광역시도 320개 중소기업의 설문조사에서 75.0%가 지방자치단체가 기

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때문에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73.2%는 지난 4년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성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지자체와의 업무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꼽은 기업인도 43.4%에 달했다.

지방정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기업유치를 외친다. 오히려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이나 해외진출을 부추기는 게 된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기반이 열악한 지방로서는 더욱 그렇다.

지방공기업 부실·방만경영 뿌리 뽑아야

문을 닫아야 할 공기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공기업과 무관한 사업을 맡겨 위탁수수를 지급하거나 수십억원의 수당을 부당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에 나선 이상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실시한 지방공기업 예비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20일부터 광주와 전남 등 100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다.

예비감사에서 드러난 부실·방만경영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공기업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산하단체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사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광주시의 한 국단은 승진 최소 소요연수를 채우지 않은 직원 54명을 승진시켰고, 직급조정을 이유로 2명을 2계급 '특진'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에 나선 이상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속성상 비리와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 살을 깎아먹는' 부실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또는 매각을 권고키로 하는 등 강력한 입장 없이 공기업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산하단체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차영호



아비홍 축제가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고 예년처럼 축제 또한 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예술축제라면 바로 이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비홍으로, 예년처럼 달려가기에 바빴다.

패하기 마련이고 그나마 현상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공연예술의 실제 현장이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연예술제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예술대국의 문화수도로 우뚝 서려는 광주는 그 꿈이 바로 공연예술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까이 흥공예술제, 싱가포르 예술제, 시드니 예술제는 이미 국제적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몬트리올 공연예술제가 창설되었다.

문화수도 광주와 공연예술제

화산업 진흥이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바로 그 문화 산업 진흥의 주축동력인 연극, 무용 등 순수문화예술이 열악한 환경의 한가운데서 약진과투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예술의 시대에 예술 장르간의 자유로운 왕래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예술의 예술성과 시장성이 조화롭게 만나고 있다.

연극과 무용 등 공연예술은 요즘 대학을 터트리는 영화와 같이 흥청대기를 바란다기 보다, 가슴 따뜻한 감동과 정신적 만족감을 무대를 맞대고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객을 갈구하고 있다.

다시말해 글로벌 아트마켓으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연예술축제가 자국의 공연예술 시장의 국내외 유통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 문화 예술의 교류, 그리고 공연예술 단체들에게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결국 수익이 창출되도록 그 기회제공을 해주는게 주된 목적이다.

앞으로 광주에서의 공연예술제가 어떻게 가야하는가는 보다 분명하다고 본다.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2005년 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신는 코너입니다.

언어순화운동으로 국적 불명 언어습관 고쳐야

최근 한 회사에서 언어 순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잘못 사용되는 언어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공동체 의식까지 저해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라치(말티), '짜라시(광고물), '선정품(사은품·기념품)'등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도 많다.

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의견을 모았더니 200여건에 달했다고 한다.

관행적으로 사용된 언어를 중에는 '구리파(절단기)', '배넬스키(휴대용 시합기)', '뿌

이러한 운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원용·광주시 동구 동명동

기고

박달호



가을은 독층 및 파충류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독상이 매우 강한 계절인 만큼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등산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부상환자가 50여 명이고 벌에 쏘이거나 독사 등에 물린 환자가 2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을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이 빠지도록 유도한 후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

벌을 유인하는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그리고 요란하거나 밝은 색 계통의 의복을 피하고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벌이 놀라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벌에 물린 사람은 재빨리 적당한 곳에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하

안전한 가을나기

먼저,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에 가야 하며, 상처에 소나무 껍질, 땀뭍가루를 바르는 행위는 금물이다.

갈밭에 부딪힌 작은 돌 등의 이물질이 눈에 박혔을 때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박거리려 눈물이 나오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하며, 눈을 비비며 이물질이 박혀 있으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 침이 박힌 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부드럽게 밀어 뽑

고,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묶은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

환자의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한 뒤 환자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직접 입으로 독을 빨아내도록 하며, 환자에게 먹거나 마실 것을 주는 행위는 금물이다.

벌초 시에는 두터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 등으로 미리 헤쳐보아 안전한 지 확인한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리며 올 가을에는 야외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구조 계장>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확인 필요

지난 9월 15일자 광주일보에 광주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반'현재 광주시 개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19곳뿐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놀랐다.

광주시에만 수십여개의 성형외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작 19개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성형 외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광고 내용을 살펴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들은 XX성형외과가 아니라 XX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달

고 영업을 한다고 한다. 나만 몰랐던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도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 꼼꼼히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증 확인하는 시민들도 별로 없다.

그저 단순하게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는 말만 듣고 병원을 택하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이미숙·광주시 서구 금호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이어도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남편이 있던 곳, 자신들도 결국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될 곳으로 굳게 믿는 환상의 섬이요, 피안의 섬이었다.

그러나 이어도는 이제 인공섬으로 바뀌어 천연이라는 소문 뿐 아무도 가보지 못했다.

이어도는 국토의 최남단 도서인 마라도에서 남서쪽 149km, 일본의 토리시마에서 서쪽 276km, 중국의 톱타오로부터 북동쪽 245km 떨어져 있다.

평균 수심 50m, 남북과 동서의 길이가 각각 1천800m, 1천400m인 수중암초로 정상에 해수면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래서 멀리 고기잡이 나갔던 어부들을 통해 '전설의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이도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00년 6월 5일 일본을 떠나 상하이로 가던 영국 기선 소코트라호가 마라도 서남쪽 바다에서 암초와

부딪치면서부터, 영국 해군성은 사고 직후 암초를 확인했고, 기선 이름을 따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 명명하고 이를 해도(海圖)에 올렸다.

그런 이어도는 이제 인공섬으로 바뀌어 천연 종합해양과학기지로서 거듭나고 있다. 한국으로 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기상 연구 및 예보의 첨병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언급, 우리 국민의 생기를 건드렸다. 정부는 즉각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한중간 배타적 경제 수역

(EEZ) 경계 획정 이전이라도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고 밝혔지만 죄없는 이어도가 외교분쟁의 복판에 선 셈이다. 동북공정, 독도문제 등은 사실상 한·중·일 역사 및 영토 분쟁의 재연이다. 법정부 차원의 역사 재검립과 국민 개인의 정신수정이 절실한 때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이어도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